

**2월 원유 생산량 14만톤...20년만에 최저**

FMD 여파로 월간 원유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에 따르면 2월 중 원유 생산량은 14만 톤으로 199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경우 집유 일수가 적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2월 중 원유 생산량이 14만 톤으로 떨어진 것은 1991년 2월 13만6천500 톤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다만 월간 생산량은 줄어들었으나 일평균 생산량은 FMD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1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2월 중 일평균 생산량은 5천2 톤으로 1월 4천 980 톤에 비해 0.4%가 늘어났다.

또 지역별로 FMD 피해가 가장 컸던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일일 평균 1천864톤으로 1월에 비해 5%가 줄어 들었으며 강원도 역시 176톤으로 6% 가량이 감소했다.

반면 FMD 피해가 적었던 지역은 1~12%까지 늘어났다. 경북은 일평균 496톤을 생산해 전월 대비 12%가 늘어났으며 경남과 제주도가 각각 4%가 충남과 전남북은 3%, 충북도 1%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원유 생산량이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일평균 생산량이 13%가 줄어들었다.

**“낙농가 고사위기...유대 현실화 절실”**

“원유가격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저것 제하고 받은 유대가 30만원이더니,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정산서에 유대가 마이너스라고 나왔 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장에 매달려 착유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북대구낙협 경주집유소에서 열린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회장 신관우·충북낙협장)에서는

낙농가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전국의 조합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소식에 회의장을 찾은 각 지역 낙우회장과 낙농가들은 “FMD로 인해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농목장 경영은 말이 아니다. 계속 조사료 가격이 오르더니 이제는 배합사료 가격까지 올랐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경영비, 유사비까지 모두 올라 이제는 버틸 힘도 없다.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고사상황에 처해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낙농가들의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시작된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유대 인상이 시급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에 앞서 낙농육우협회 도지회들도 유대인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지회장 박순홍)와 전북도지회(지회장 오교을)는 지난 3월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원유가 현실화 등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FMD이후 낙농생산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으며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해 낙농가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다”며 “원유가 현실화는 낙농가들이 호의호식하지는 것이 아니며 낙농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낙농관련조합장들은 낙농육우협회와 함께 원유가현실화 등 현안해결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협의회 집행부와 낙농육우협회 임원진, 낙농진흥회 이사 등 생산자대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회의를 갖고 현안 해결에 생산자단체의 힘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협의회에서 오는 4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낙농진흥회 이사에 신관우 협의회장과 박인석 지리산낙협장, 박남용 경대낙협장을 추천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젓소 나눔 캠페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월령별 적정가격이 제시되면 얼마든지 젓소를 내놓을 농가들이 있다며 젓소 수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들은 또 협동조합 중심 집유 일원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원유 확보 전쟁에 심혈본 농가 '시면조기'

FMD(구제역)로 인해 살처분 당한 낙농가들이 최근 젓소 산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처분 농가들이 젓소 재입식 준비를 위해 중간상인들에게 거래가격을 문의하면 초임만삭우가 최소 4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고 능력이 좋은 소의 경우 600만 원을 호가한다며 피해농가들을 한숨 짓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젓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에 따른 기존농가들의 기대심리와 함께 일반 유업체들이 본격적인 원유확보전을 벌이면서 일반 농가들까지 입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요 유업체들이 초과원유에 대해 전량 정상원유가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반 농가들까지 서로 젓소를 입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의 한 낙농가에 따르면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유대로 지급하는 한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입식자금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초임만삭우가 450~48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젓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젓소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살처분 농가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살처분 보상은 살처분 당시 기준 시세로 보상받지만

정작 입식 시점에서 젓소 가격이 보상금의 2배 이상을 줘도 젓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국구제역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은 젓소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현행 보상금 산정기준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입식시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능력우 기준 완화, 개량 정도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등 보상금지급요령을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젓소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고려해 젓소씨암소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줄 것과 수입종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 우유 '넘버 2 그룹'의 반격

지난 3월 17일 우유업계 관계자는 "쿼터보다 많은 물량도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해 수급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주요 업체의 거래 목장 빠가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유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2012년까지 업체들마다 쿼터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체에 따라 거래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우유 지키기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매일유업과 빙그레 등이다. 매일유업과 빙그레는 2012년 말까지 쿼터량이 넘는 생산량도 전량 정상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하루 필요량의 55% 가량을 낙농진흥회에서 공급받는다. 나머지는 200여 곳의 자체 거래 목장 등에서 조달하고 있다. 파스퇴르와 건국유업도 전량 정상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원대어리푸드는 쿼터 물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 정상 가격의 9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쿼터량 자체를 늘린 곳도 있다. 낙농가들에서 우유를 매집해 유업체에 전달하는 낙농진흥회는 현행 쿼터량의 5%를 수급완충물량(버퍼물량)으로 설정했다. 잠정적으로

5%가량 쿼터량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동원데어리푸드와 남양유업은 각각 쿼터 할당량을 20%, 10%씩 늘려 잡았다. 남양유업은 신제품 출시 등으로 하루 평균 80여 가량의 원유가 부족하다. 낙농가로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가능해진 셈이다.

거래 조건을 낙농가에 유리하게 고친 곳도 있다. 낙농진흥회와 비락우유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쿼터 적용 단위를 최근 '15일'에서 '연간'으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15일 단위로 집유량을 계산해 쿼터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값을 낮춰 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해 적용하는 것이다. 우유의 경우 봄과 겨울의 생산량 편차가 심해 봄에 생산되는 우유는 제 값을 받기 힘든 형편이었다. 쿼터가 연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가들로선 더 많은 우유에 대해 정상 가격을 받게 됐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기존 쿼터량이 1920여kℓ에 달하는 데다, 구제역 발생 이전에도 원유 공급량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서 별도로 쿼터를 늘리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유 공급난이 금세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젖소들이 대거 살처분되고 위험지역 내 원유가 폐기되면서 지난해 말 이후 하루 평균 158.9kℓ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



낙농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젖소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낙농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 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600여 명의 낙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현재 보상금 기준으로 받는 보상금으로는 기존 규모의 1/3밖에 젖소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상금 산출시점을 매몰기준이 아닌 재입식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줄 것"과 "목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대 손실 보상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비대위는 가축입식자금 지원도 살처분 가축 전두수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집행부는 낙농가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으며 각오를 다지기 위한 삭발식도 가졌다. 또 구제역 살처분 젖소들의 영혼을 기리는 축혼제와 함께 낙농가들의 영원을 담아 집회에 참석한 모든 낙농가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50배를 울리기도 했다. ☹

